



두산 김재호(52번)가 2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 홈경기에서 3회말 루이스 히메네스(맨 왼쪽)의 태그를 피해 홈을 파고들고 있다. 결과는 LG 포수 박재욱의 주루방해로 인한 세이프. 장철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홈에서 태그했는데 왜 세이프지?

LG-두산전 합의판정 해프닝

홈 충돌 방지 규정 위반으로 '세이프'
LG 선발 허프, 3회에 8실점 와르르

2일 잠실구장을 뒤흔친 '마의 3회말', 그 시작은 규정 밖에 있던 심판 합의판정이 몰고 온 해프닝부터였다.

두산이 LG에 0-1로 뒤진 3회말, 선두타자 김재호의 중전안타와 박세혁의 2루 땅볼로 만든 1사 2루에서 9번 류지혁이 2루수 옆 내야안타를 때려냈다. 이때 김재호가 홈을 노렸고, 3루수 루이스 히메네스가 김재호를 뒤쫓다 홈에서 태그에 성공했다. 그러나 배병두 주

심이 세이프를 선언하자 LG 양상문 감독이 곧바로 합의판정을 요구했다. 비디오를 돌려본 결과 태그가 빨랐지만, 합의판정을 마친 나광남 1루수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LG 포수 박재욱이 홈에서 주자의 주루를 막는, 이른바 홈충돌방지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2016 KBO리그 규정'에 따르면,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규정(제1장 KBO정규시즌 제28조)에는 심판판장은 감독의 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판정에 대해선 합의판정을 실시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고 명시돼있다.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LG는 홈에서 일어난 아웃-세이프 여부만을 놓고 합의

판정을 요청한 것이기에 심판이 홈충돌 방지규정을 따로 판단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만약 두산 김태형 감독이 재차 홈충돌방지규정에 대해 합의판정을 요구했으면 모를 일이었지만, 심판이 세이프를 연이어 선언했기 때문에 굳이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

이에 대해 심판진 측은 시즌 전 감독들과 합의를 거친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대기실을 맡은 박종철 심판은 "올 시즌 들어가기 전에 심판진과 감독들이 동시에 일어난 플레이에 대해선 포괄적으로 판정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경기에서 만약 홈 아웃-세이프 합의판정 이후에 두산이 다시 홈충돌에 관해서 합의판

정을 또 신청한다면 경기가 너무 지연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즌 전에 합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박심판은 합의판정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인 만큼 이해해달라는 말을 함께 남겼다.

이 판정은 경기의 흐름까지 바꿔놓았다. 두산은 이후 상대실책과 연속안타로 7점을 더 뽑고 승기를 쟁긴 반면, LG는 선발 데이비드 허프가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무너졌다. 허프는 3회에만 8실점 무자책이라는 쓸쓸한 성적을 뒤로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장철 |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버스 탈 때까지 스윙…테임즈는 연습벌레

홈런 1위·타점 2위 올해도 최강자
김경문 감독 "배트 놓는 법이 없다"



NC 에릭 테임즈(30·사진)는 지난 시즌 KBO리그 MVP다. 역대 최초로 40홈런·40도루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타격 4관왕(타율·득점·출루율·장타율)에 오르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올해도 그의 질주는 계속 되고 있다. 1일까지 84경기에 나서 타율 0.333, 31홈런, 83타점을 기록했다. 10개 구단 타자 중 가장 많은 홈런을 쳤고, 두 번째로 많은 타점을 올렸다. 영양가도 높다. 일례로 7월31일 마산 LG전에서는 6-8로 뒤진 9회 동점 2점홈런을 때려내며 짜릿한 역전승의 발판을 냈다. 이외에도 출루율(0.450) 3위, 장타율(0.731) 1위 등 타격 부문에서 대부분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3년 연속 30홈런을 칠 정도로 꾸준하다. 쉽지 않은 일이다. 테임즈를 향한 상대의 경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철저한 전력분석으로 테임즈를 맞출승부를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테임즈는 덩달아. 오히려 극복 의지를 불태우며 더 험하게 방망이를 휘두른다. NC 김경문 감독이 보는 테임즈의 가치도 성적이 아닌 그가 흘리는 땀방울

에 있었다. 김 감독은 테임즈에 대해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없다. 다 노력하기 때문"이라며 "테임즈는 배트를 놓는 법이 없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항상 배트를 잡고 있다. 만족하지 못하면 계속 타격훈련을 한다. 말려도 소용없다"고 귀띔했다.

사실 2014년부터 '연습벌레 테임즈'는 유명했다. 같은 팀 동료인 이호준이 "용병이 원정버스 앞에서 방망이 휘두르는 건 처음 봤다"고 할 정도다. 테임즈의 통역을 맡았던 구단 직원들도 하나 같이 "훈련을 너무 많이 한다. 가끔 걱정이 되지만 그래서 최고의 자리를 지킨다고 생각한다"고 입을 모았다.

테임즈의 땀방울은 팀에 시너지효과도 불러오고 있다. 최고의 자리에 있지 만 야구를 향해 끝없이 갈증을 드러내는 그의 모습은 젊은 선수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나성범 역시 테임즈를 뛰어넘겠다는 목표를 더 열심히 뛰고 있다. 김 감독도 "테임즈는 우리 팀이 리그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잘 해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보였다.

마산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염경엽 감독 칭찬 경계령…왜?

과도한 칭찬으로 '현실 안주' 우려

"너무 칭찬하지 마세요."

넥센은 올 시즌 95경기를 치른 1일까지 53승1무41패로 당당히 리그 3위에 올라있다. 팀 타율은 2위(0.292), 방어율은 4위(4.86)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놀라운 선전이다. 중심타자 박병호(미네소타)와 유한준(kt), 필승계투요원 조상우와 한현희(이상 팔꿈치 부상), 손승락(롯데)의 이탈로 전력의 대부분이 빠져나간 공백을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1승을 더 했고, 타율(0.298)과 방어율(4.79)의 차이도 크지 않다.

그러나 넥센 염경엽 감독(사진)은 "너무 칭찬하지 말라"며 손사래를 친다. "어떻게 차·포·마·상을 모두 떼고 이렇게 잘할 수 있나"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혹여 선수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염 감독의 마음속엔 2014년 삼성과 한국시리즈, 2013년과 지난해 두산과 준플레이오프에서 패한 아쉬움이 크게 남아있다. 시즌 전 예상보다 성적에 좋았던 건 올해와 같다.



염 감독은 "칭찬하다 보면 선수들이 현실에 안주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마무리 김세현을 크게 질책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김세현은 7월29일 대구 삼성전에서 5-4로 앞선 8회말 1사 2루에 등판해 불운세이브를 저질렀다. 2사 2루에서 김상수를 상대로 쉽게 승부하다 적시타를 허용했다. 볼카운트 2B-0S에서 한가운데 직구로 승부한 게 문제였다. 염 감독은 "쉽게 승부하는 습관을 고치라고 몇 번씩 강조했다. 3번까지 그냥 넘어갔는데, 또 실수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 내내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던 염 감독이기에 아쉬움이 클 만했다.

만족을 모르는 성격이지만, 선수들에 대한 고마움은 잊지 않는다. 염 감독은 "올해 선수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리고 또 강조한다.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그리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라."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혈당관리 · 혈압조절 참 어려우시죠?

‘일양 당케어알파’로 한번에 관리하세요!

혈당관리, 혈압의 유지,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허브추출물들을 1캡슐에 담은 복합형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되어 화제이다. 70년 전통의 일양약품에서 바나바잎 추출물, 올리브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을 과학적으로 배합해서 1캡슐에 담은 ‘일양당케어알파’가 그 주인공. 식약처에서 인정한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 및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혈당, 혈압, 혈행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성분들을 한 번에 섭취하도록 구성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기능성 내용〉

- 바나바잎 추출물 : 코로솔산**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기능성 성분
- 올리브잎 추출물 : 올러유리핀**
건강한 혈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개별인정형 기능성 성분
- 은행잎 추출물 : 플라보놀 배당체**
혈행과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기능성 성분

이런 분께 권장합니다!

- 평소시 혈당이나 식후 혈당이 높은 분
- 식후 혈당상승을 억제하고 싶은 분
- 과식, 과체중으로 혈당조절이 필요한 분
- 운동부족으로 높은 혈당이 염려되는 분
- 혈압이 정상보다 높아 조절이 필요한 분
- 고지방 고칼로리 식사로 혈압이 높은 분
- 나이가 들면서 혈행이 원활하지 않은 분
- 혈행개선으로 활력있는 생활을 원하는 분
- 떨어지는 기억력을 개선하고 싶은 분

출시 기념 이벤트로 당일 구매 고객에 한해 2주 무료 체험분을 추가 증정합니다

NAVER 일양 당케어알파 검색

상담문의 1577-7681

“세월을 피해갈 순 없지만, 건강은 관리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